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의 행동

하느님과 비슷한 인간

하느님은 사람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모든 동물과 식물등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많은 자녀를 낳고 번창하여 온 세상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주시어 재창조할 수 있는 지력과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품위를 갖는 존재가 되게 하시었다.

창세 1:26-28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들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인간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당연한 권리와 품위를 간직하고 지켜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권리와 품위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잃게 되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게 되며, 이를 다시 회복하여 그분과의 단절을 막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창세 2:7-8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빛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은 하느님과 같은 능력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거룩한 품위 또한 하사받고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이다. 이 자비, 용서, 사랑이라는 천상적 품위를 간직하고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라 혹은 빛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들은 이 품위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참으로 보기 흉측한 존재가 되고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저해하며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니니 하며, 조금의 남보다 많이 있는 재산이나 혹은 좀 더 안다는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갑질하고 진상노릇을 하며, 일진이라는 악당의 무리와 휩쓸려 다니며 그들의 동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며 손해를 끼치는등의 인간이하의 악행을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것들은 자신의 고상한 인간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악행이다. 이 어찌 혹독한 벌의 후과를 면할 수가 있을까? 자비와 용서 사랑보다 더 하느님이 즐기시는 제사나 제물은 없다.

하느님이 좋게 보시는 이런 제물을 바치면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용서받게 되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모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필요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귀여겨 들어주신다.

로마 12:1-3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티모 1:12-14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 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 줄지 누가 아느냐?]

요한 1:3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가난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떨런지?

주 아버지, 성스러운 하느님!

나로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지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와 너 그리고 온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성실하게 나의 모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바쳐 당신과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삶의 가장 훌륭한 목적이 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고 항상 이를 위해 모든 나의 능력을 아낌없이 바쳐 당신의 뜻을 이름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그날의 필요한 것 만큼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주님과 이웃을 위해 바치도록 나에게 가장 마음에 들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할 수있게 인도해 주소서!

주님! 나와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피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어 인도하시어 성취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이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본받아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한 본분인 자비, 용서, 사랑을 실천하여 보다 더 당신의 모습을 닮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죄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봉착하 않도록 해 주시고, 현재나 죽어서도 당신과 함께 사는 영광과 행복을 얻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함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와 또한 영원히!

아멘!

글: 유병기(베네딕도)

연중 제 26주일
2023년 10월 0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두 아들의 비유〉안드레이 미로노프, 2012년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18,25-28
- # 화답송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 제 2독서 도 바오로의 필리피서2,1-11
-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복음 마태오21,28-32
- # 성기번호 입당 575 봉헌708(미국 성가), 210
성체 166, 174 파견458

